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
	기획대외협력실 880-8156, kyk1126@snu.ac.kr

배포일: 2023.10.26.(목)

현송교육문화재단 학술연구지원금 쾌척

자연과학대학 '현송펠로우' 신설 및 AI 컴퓨팅 교육 기반 구축 -

현송교육문화재단 발전기금 기부

- 故현송 주창균 선생에 의해 1974년 설립된 현송교육문화재단은 지난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3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였으며,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.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정일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동문으로 2008년부터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있다.

'현송펠로우' 지원사업 신설

- '현송펠로우' 지원사업은 현송교육문화재단 학술연구지원기금으로 2023년 신설된 자연과학대학 우수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연구 주제를 다루는 차세대 노벨상 후보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.
- 2023년도 '현송펠로우' 우수연구자(화학부 김석희 교수, 지구환경과학부 심민섭 교수) 2명을 선발하였고, 자연과학대학 매칭 펀드를 추가하여 연구비를 지원한다.
- '항체 다양화를 모사한 단백질의 인공진화 구현' 을 주제로 항체 기반 신약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핵심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김석희 교수와 '동위원소 생명지표를 이용한 태양계 생명탐사' 를 주제로 태양계 생명활동 탐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원천기술 연구 분야의 심민섭 교수가 선정되었다.

김석희 교수(화학부) - 단백질 인공진화 구현 연구

세포 내 표적 DNA를 다양화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하여, DNA 및 단백질 수준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분자들을 만들어 내는 생명체의 항체 다양화를 모사한 단백질 인공진화를 구현한다.

심민섭 교수(지구환경과학부) - 태양계 생명 탐사 연구

다중 동위원소 연구를 생명 활동의 일반적인 특징과 연결하여, 화성을 비롯한 태양계 생명 탐사에 적용할 수 있는 생명활동 지시자를 제안하고, 수 십억 년 나이의 지구 암석에서 희미한 생명활동의 흔적을 밝혀낸다.

AI 컴퓨팅 교육 기반 구축

- 학술연구지원기금 중 일부는 자연과학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사용한다. 미래 시대를 선도할 자연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‘자연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 개론’ 등 자연대 맞춤형 AI 컴퓨팅 교과목을 개발하고, 교과과정 개편을 시행한다.